

2019년 6월 14일(금) 08:00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권나미 활동가 / 김명혜 교육아카이브팀장 / 02-3482-0999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복날! 과학으로 뒤집어 볼까?'

카라, 보신문화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강좌 진행
동물복지·동물행동 전문가와 함께 닭, 개, 곰에 관한 정보 공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동물권 교육의 일환으로 복날을 앞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3강에 걸쳐 국내 보신문화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강좌를 진행한다.

'과학으로 뒤집는 복날: 우리는 보신문화에 반대한다'강좌에서는 개, 곰, 닭, 세 가지 동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대표적인 반려동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신의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개', 국가에 의해 웅담채취용 사육이 장려되었던 '곰', 복날 가장 많이 소비되는 동물인 '닭'을 다룬 각 강좌를 통해 한국의 보신문화의 허점을 짚어보고 각 동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라는 반려동물부터 야생동물까지 '보신'이란 이유로 음식이 되는 문화와 보신탕, 웅담, 삼계탕이 보신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대답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보신 음식으로 착취되는 동물의 현실을 통해 사회적 고민도 함께 나눈다.

유럽동물자연보호협회 동물보호소 (Tierheim Hof Wiesenfeld)의 동물병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건국대학교 수의학교 겸임교수이자 카브 동물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인 이해원 수의학 박사가 '개'와 '닭'의 강의를 맡았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응용동물행동학 및 동물복지학 석사를 졸업한 뒤 현재 국내 사육곰 구조 및 보호를 위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최태규 수의사가 '곰'의 강의를 진행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의 동물권 교육 '더배움'은 동물 운동의 철학적·이론적 토대를 짚어보며 동물권 교육의 대중적 확산과 동물권 인식 향상을 위해 올

해부터 시작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참가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블어숨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카라 동물권 《더배움X복날》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6/27(화), 7/2(목), 7/4(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3강)
- 장소 : 카라 더블어숨센터 교육장(B1)/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대상 :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3만원 (강의 개별 신청 불가)
- 프로그램
1강(6/27) 개 | 반려동물까지 음식이 되는 보신문화 / 이해원
2강(7/2) 곰 | 웅담 말고 운동! / 최태규
3강(7/4) 닭 | 닭은 닭으로 살고 있는가? / 이해원
- 신청방법 : 카라홈페이지(<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1551>)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

[붙임자료] 홍보물 이미지 4종(웹자보 이미지-원본, 웹자보 이미지-상/하ver, SNS 이미지)